

'말이다'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재구조화

이래호(한국학중앙연구원)

1. 문제 제기

본고는 체언 '말'과 계사 '이-'가¹⁾ 결합하여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이루는 '말이다'와 그것이 재구조화된 '말이다'가 이루는 구문의 특징과 '말+이-'의 재구조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의 전형적인 계사구문은 'NP₁이 NP₂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NP₁과 NP₂에는 의미자질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본고가 살펴보려 하는 '말이다' 구문은 아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₁과 NP₂의 의미관계가 등치관계 혹은 속성적 관계를 가지는가 하면, (2)에서는 NP₁과 NP₂의 관계가 전형적인 계사구문의 그것과 같이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3)의 경우는 '말이다'가 계사구문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1) 계사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국어 문법 논의에서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였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전통문법에서는 '이-'를 지정사로 하여 하나의 품사로까지 설정하기도 하고, 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매개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형용사의 일종, 서술격조사, 접미사로 처리하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계사 '이-'에 대해 형용사의 일종으로 보고, 'NP+이-'에서 핵은 '이-'에 있으며, NP는 '이-'에 대한 필수적인 보충어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계사 '이-'와 '핵'에 관해서는 서정목(1998)에 언급이 되어 있다.

- (1) 가. 'I'm a student'는 '나는 학생이라'는 말이다.
나. 그것은 철수가 잘못했다는 말이다.
다. 그것은 철수가 한 말이야.
- (2) 가. 요즘은 경제가 아주 좋단 말이야
나. 그 말은 철수가 했던 말이다.
- (3) 가. 그런데 말이야, 그 말 사실이니?
나. 제가 말입니다. 어제 수원역에 갔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심은하를 보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이쁘다 말입니다.

(1)의 '말이다'는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I'm a student=나는 학생이라는 말', '그것=철수가 잘못했다는 말'의 관계를 지정할 수 있으나, (2)는 '요즘=경제가 아주 좋단 말', '그말 = 철수가 했던 말'의 구조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3)의 '말이다'는 명사구 보문이나, 관계문의 수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예문이다. 즉, '말이다'가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가게 하는 예문들이다.

(1)의 예문들에서 '이-'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지만, (2)의 문장들은 '이-'가 서술어로 기능한다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2)에서는 '-니'와 '말이다' 구성을 생략하여 '요즘은 경제가 아주 좋다', '그 말은 철수가 했다'와 같이 문장의 명제내용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지 이 구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화자가 명제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달하는가 하는 데 있다.

(3)은 대화 중간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간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와 (3)의 '말이다'는 계사 '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원적으로는 '말+이-'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공시적으로는 '말+이-'로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데 공시적으로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재구조화를 겪었다는 것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의 ‘말이다’ 구문과 (2)의 ‘말이다’ 구문을 위주로 그 통사적 특징과 재구조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1)과 같은 유형의 ‘말이다’ 구문을 ‘말이다-1’, (2)는 ‘말이다-2’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2. ‘말이다-1’ 구문의 특성

(1)과 같은 ‘말이다’ 구문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NP₁이 NP₂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그 논항은 ‘NP₁’과 ‘NP₂’가 된다.

(4) 가.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나. 그것(=내가 한 말)은 영희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다.

다. 그것은 철수가 한 말이야.

(4)는 ‘NP₁이 NP₂이-’의 구조에서 ‘이다’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은 ‘言’, ‘話’ 등의 온전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의 예문들은 정확히는 ‘NP₁은 S-는 말이다’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S-는 말’이 계사구문의 NP₂ 역할을 한다. 즉 (4가)는 NP₁은 ‘르네상스’이며 NP₂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4)가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이루므로, ‘이-’는 NP₁과 NP₂ 간의 등치관계나 속성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4)의 예문들의 NP₁과 NP₂는 등치관계를 이룬다. 즉 (4가)에서 ‘S’는 ‘다시 태어난다’와 같은 NP₁의 의미해석을 하거나 (4나)에서와 같이 NP₁의 구체적인 내용이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NP₂의 핵인 말은 외연이 NP₁에 비해 넓기 때문에 항상 수식을 받아야 그 외연을 한정시켜야 한다. (4가)의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처럼 NP₂가 ‘NP₁’의 의미 해석/풀이를 할 경우, NP₁에는 ‘*그 르네상스’와 같은 관형사의 수식도 불가능하다. 또한 NP₂의 의미자질은 항상 [-human]이기 때문에 NP₁에는 항상 [+human] 자

질을 가지는 명사구가 올 수 없다. 앞의 (1가), (4가)는 NP₂의 ‘S’가 상위언어적 기능을 가지며 NP₁의 의미를 해석하는 구문에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²⁾ 이러한 경우, ‘말’은 ‘뜻’과 같은 어휘로도 대치가 가능하다. (4가)는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대치는 (4나)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한편 (4)에서 보듯이 NP₂의 핵 ‘말’은 관계화 구성이나 보문구성에 의해 NP₂로 확장된다. (4다)의 NP₂ ‘철수가 한 말’은 [[[철수가 ei 하-]-_N] 말]의 구조³⁾로서 ‘말’이 선행 수식절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말’이 선행 수식절에서는 삭제되어 공범주로 나타나는 관계화 구성이다. (4가)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보문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4나)는 [[[영희가 제일

2) 이러한 구문은 중세국어에서는 ‘이논 S흔논 마리라’와 같은 구문으로 나타나거나 ‘이논 S흔논 마리라’, ‘이논 S스 말’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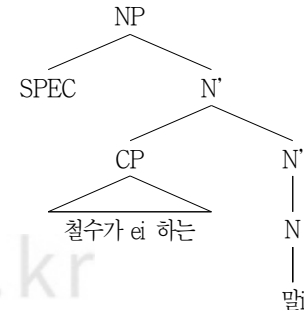
가. 此는 言 …… 울히 여름 머거든 오논 희에 쏘 여러 당상 머그리라 혼논 마리라(두초15, 22)

나. 無色이 머리 좃다 혼 말도 이시며(월석1, 37)

다. 本來 善 업스며 惡 업닷 마리니(남명상, 9)

이에 대해 이현희(1991:314-315)에서는 ‘이논 S 흔논 말’이라는 구문은 ‘이 = S흔논 말’이라는 논리적 등가 관계를 유지하며 ‘S 흔논 말’은 ‘S= 말’이라는 논리적 등가 관계를 유지하며, 이 관형 구문에서의 ‘흔논’은 통사적으로는 비록 ‘니르논’에서 왔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이들의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3) 이를 나무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예쁘다]-는] 말]의 보문구성을 취하고 있다. 남기심(1973)에서 언급한 용어대로 한다면⁴⁾, (4가, 나)는 완형보문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다'는 다음 (5)와 같은 불구보문의 모습도 취할 수 있다.

- (5) 가.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한데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나. 창가는 노래 부를 때의 가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5가)는 [[[동사와 형용사를 한데 묶어서 일컫-]는] 말]의 보문구성이며 (10나)는 [[[노래를 부를 때의 가사를 가리키-]는]말]의 보문구성이다. 그러나 (5)와 같은 문장은 완형보문으로 변형이 어렵다.

- (6) 가.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한데 묶어서 일컫는다는 말이다.
나. *창가는 노래 부를 때의 가사를 가리킨다는 말이다.

(6)에서 보듯이 NP₂에서 '일컫다', '가리키다', '뜻하다', '지적하다' 등 'NP₁'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사가 'S'안에 나타날 때는 'NP₁은 S-는 말이다'의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위 (5)에서 NP₂의 핵 '말'은 '용어'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용언은 ... -는 용어', '창가는 ... -는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이때 NP₂는 NP₁의 속성을 나타낸다. 즉 완형보문을 이룰 때는 NP₁과 NP₂는 등치관계를 이루지만,⁵⁾ 불구보문을 이룰 때는 NP₂는 NP₁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명사구 보문이나 동사구 보문은 보문자를 제외한 보문의 모습이 종결어미를 통합한 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남기심(1973)에서는 완전한 문장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것을 완형보문이라고 부르고, 그에 비해 종결어미를 통합하지 않은 보문을 불구보문이라고 불렀다. 또한 (이익섭, 임흥빈, 1983)에서는 이들 보문이 상위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의미해석상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냐 하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서 각각 간접보문, 직접보문이라고 일컬었다.
5) '김정식은 김소월이라는 말이다.'와 같은 경우, '김정식 = 김소월'의 등치관계를 이루지만, 이 등치관계는 보문 '김정식은 김소월이다'의 등치관계이지, '*김정식 = 김소월이라는 말'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모문의 '이다'의 주어는 생략되었거나 공범주 주어라고 할 수 있다.

완형보문의 '-는'은 간접인용문에 나타나는 보문자 '-고'와 상위문의 인용동사 '하-'가 결합된 '-고 하-'에서 '-고 하-'가 생략되고 남은 형태이다.⁶⁾ 따라서 (4가)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 (7) 가.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다.
나.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이다.
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고 하-'가 복원된 문장구조는 '-고'가 완형 보문을 이끌어서 상위문 동사 '하-'의 지배를 받고, 이 구조는 다시 피수식 명사구 '말'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는 보문과 상위문 간의 어떤 논리적 제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문을 상위문 동사에 내포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는 완형보문을 관형수식구화기 위해 도입되는 실질적 의미내용이 없는 문법적 형식요소이다(남기심, 1986). (7)의 '-고 하-'가 있는 문장과 그것이 생략된 문장들에서 의미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7다)는 (7가)의 '-고 하-'의 생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7가)로 복원될 수 있다.

앞의 (4)는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이루므로 관계 관형화가 가능하다.

- (8) 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인 르네상스
나. 영희가 제일 예쁘다는 말인 그것
다. 철수가 한 말인 그것

한편, (4)는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이루기 때문에 부정이 가능하며, 시제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통합이 자유롭다.

6) 이현희(1990)에서 '-고 하-'는 의미내용이 없는 형식동사이거나, 화자와 청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생략된다고 하였다.

- (9) 가.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다.
나. 그것은 영희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 아니다.
- (10) 가. 어제 내가 한(했던) 말이 철수가 갔다는 말이었다.
나. 어제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철수가 갔다는 말씀이시다.
다. 그 말은 내일 비가 오겠다는 말이겠지
- (11) 가. 이 말은 영희가 예쁘다는 말이고, 그 말은 순이가 예쁘다는 말이다.
나. 이 말은 영희가 예쁘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순이가 예쁘다는 말이다.
다. 이 말은 영희가 예쁘다는 말이라면, 그 말은 순이가 예쁘다는 말이다.
라. 이 말은 영희가 예쁘다는 말인데, 그 말은 순이가 예쁘다는 말이다.

(9)은 부정변형, (10) 선어말어미의 통합, (11) 연결어미의 통합의 예를 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가 모두 한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3. '말이다-2' 구문의 특징

'말이다-2' 구문의 '이다'는 주어 명사항에 대한 '동일성'이나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 (12) 가.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이야.
나. 나는 내일 그 일을 할 거란 말이다.
다. 철수가 그것을 했던 말입니다.
라. 네가 거기에 가야 한단 말이야.

(12)는 '이다'가 모두 두 NP₁과 NP₂라는 명사항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즉 (12)에는 '이다'가 있지만, 'NP₁이 NP₂이다'의 전형적인 계사구문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가) '이다'의 주어는 '나는'가 아니며, 따라서 '나는 =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의 등가관계도 이를 수도 없고,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인 나'처럼 관계 관형화도 불가능하다. 또한 종결어미

도 평서형의 '-아', '-다'나 '-ㅂ니다' 정도 밖에 취할 수 없다. (12)에서 '말이다'는 단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조를 나타낼 뿐, 어떤 명제 내용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이다-2' 구문의 특성은 '말+이다'가 재구조화되어 양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말이다-2' 구문은 항상 '....ㄴ 말이야'의 형식을 보이며, '-는 말이야'로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

- (13) 가.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는 말이야.
나. 나는 내일 소풍을 갈 거라는 말이다.
다. 철수가 그것을 했다는 말이야.
라. 네가 거기에 가야 한다는 말이야.

(13)은 (12)와 그 의미가 다르다. (12)의 '말이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면, (13)의 경우는 앞의 (4)와 같은 전형적인 계사구문으로 '....는 말이' '이다'의 보어역할을 하고 있다. '-ㄴ 말이다'는 단순히 '-는 말이다'의 축약형이 아니다. (12)와 (13)은 '말이다-2' 구문의 보문소는 '-는'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이다-2' 구문과 같이 화자가 명제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는 화자 중심의 양태구문은 주어의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다.

- (14) 가. 내가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야.
나. 네가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야.
다. 그가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야.
라. 이것은 책상이란 말이야.

양태를 나타내는 구문은 어떤 개체에 대한 서술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주어에 선택 제약을 부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칭 제약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남길임 2003:189).

‘말이다-2’ 구문은 하위문의 문장형식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 (15) 가. 그가 서울에 갔던 말이다.
나. 함께 서울에 가잔 말이다.
다. 빨리 서울에 가란 말이다.

‘말이다-2’가 재구조화기 전 간접인용문은 다양한 형식이 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성질은 ‘말이다-2’가 재구조화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말이다-2’ 구문은 ‘말이다’의 선행용언이 생략된 채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 (16) 가.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이야.
가. *나는 오늘 기분이 말이야.
나. 철수가 그것을 했단 말이야.
나. *철수가 그것을 말이야.

이는 ‘말이다-2’가 선행 용언에 항상 의존적으로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말이다-1’구문은 부정문을 형성할 때 다른 동사나 형용사 구문과 달리 부정의 부사나 부정의 보조 용언을 이용하지 않고 ‘아니다’를 이용하여 어휘 부정을 하였다. 이러한 ‘아니다’ 부정은 ‘말이다-1’ 구문에서만 가능하고, ‘말이다-2’ 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⁷⁾

- (17) 가. *오늘은 날씨가 좋단 말이 아니다.
나. *그것은 철수가 했단 말이 아니다.

7) ‘말이다-2’가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임규홍(1998)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임규홍(1998)에서는 이밖에도 ‘쫄쫄’이 불가능하고, ‘말이야’가 생략되더라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영향이 없고, 그것이 양상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명제 서술어와 대치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이다-2’ 구문에서 ‘이다’가 ‘아니다’로 어휘부정이 불가능한 것은 양태적 구문의 구조적 특성과 ‘이다’의 의미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양태적 구문에서의 ‘이다’는 문장에서 독립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하고 선행하는 ‘말’과 함께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말이다-2’ 구문은 ‘말이다-1’ 구문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며, ‘이다’의 의미 역시 두 명사항의 동일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두 명사항의 동일성이나 속성관계를 부정하는 어휘 의미를 가진 ‘아니다’의 어휘 부정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⁸⁾

또한 ‘말이다-2’는 선어말어미 ‘-겠-’, ‘-었-’, ‘-시-’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 (18) 가. *오늘은 날씨가 좋단 말이겠다
나. *그것을 철수가 했단 말이겠다.
(19) 가. *오늘은 날씨가 좋단 말이였다.
나. *그것을 철수가 했단 말이였다.
(20) 가.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가셨단 말이셔.
나. *오늘은 할머니께서 더 아름다우신단 말이시다.

(18)은 ‘말이다’와 ‘-겠-’의 결합이 제약되는 예이다. ‘말이다-2’ 구문이 이미 이루어지거나 확정성을 지니는 명제에 대해 강조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와 ‘-겠-’이 가진 ‘추측’의 의미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19)는 ‘말이다-2’는 항상 발화시에서 화자의 명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과거의 ‘-었-’과는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0)은 ‘말이다-2’가 화자의 양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에 존재 대상일지라도 ‘말이다’에 ‘-시-’가 결합하는 것이 제약되는 예

8) ‘말이다-2’가 부정문이 불가능한 것은 완전한 재구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박재연(2003)에서 ‘양태 표현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정형식을 취할 수 있는 구성은 문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과 안주호(2004)에서 ‘일반적으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일수록 부정의 작용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다.

‘말이다-2’ 구문은 그것의 의미기능으로 인해 의문형어미와 통합하는 데 큰 제약이 있지만, 설명의문이 수사의문으로 쓰일 경우, 또 내적의문일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 (21) 가. *오늘은 날씨가 좋단 말이나? / *말이지? / *말이구나
나. *오늘은 날씨가 좋단 말이나?
다. *그것을 철수가 했던 말이나? / *말이지? / *말이구나!
- (22) 가. 오늘은 날씨가 어찌 이렇게 좋단 말이나?
나.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나?
다. A: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
B: 그가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던 말이야?
라. 그래 네가 나를 모욕했던 말이지?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21)은 의문문의 구성이 불가능한 예이다. 이와 같이 ‘말이다-2’ 구문이 의문문 구성으로 변환 가능하지 않는 것은 화자의 명제에 대한 강조 표현이 의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또한 확인 의문의 ‘-지’와 감탄의 ‘-구나’도 ‘말이다-2’에 결합할 수 없다.⁹⁾ 이는 ‘말이다-2’가 가지는 강조의 의미와 확인 의문, 감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21)의 공통점은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판정의문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적격성을 획득한다면 그것은 모두 ‘말이다1’으로 해석된다.

의문문이라고 하더라도 (22가), (22나)처럼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

9) 임규홍(1998)에서는 ‘네가 그것을 했던 말이나?(말이지, 말이야, 말이구나!, *말이자, *말이라)’라는 예문을 들고 ‘말이나, 말이지, 말이야, 말이구나’ 등으로 어느 정도 풀바꿈이 가능한 것은 이것(말이야)이 단순히 담화표지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서술어로서의 명제적 의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말이지’, ‘말이구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는 ‘그 말은 네가 그것을 했다는 말이지?, 그 말은 네가 그것을 했다는 말이구나!, 그 말은 네가 그것을 했다는 말이나?’에서 단순히 ‘-다는’이 축약되어 ‘-는’으로 나타난 것으로 ‘-단 말이다’로 재구조화된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하다. 그러나 이때는 의문의 표현이 아니라 ‘말이다-2’가 가지는 강조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수사의문문이다.¹⁰⁾ (22다)와 같은 경우는 A가 준 정보에 대해 B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B는 A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B 자신에게 질문하는 내적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의문은 꼭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말이다-2’는 의문형 어미의 결합이 가능하다. (22라)도 (22다)와 동일한 경우이다. ‘-지’와 같이 확인의 의문형 어미가 결합되었지만, ‘네가 나를 모욕했던 말이지’는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문형 어미가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말이다-2’는 연결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이 있다.

- (23) 가.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고, 그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단 말이다.
나. *철수가 그 말을 했던 말이지만, 영이가 그 말을 했던 말이야
다. *철수가 했던 말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해?
라. *이 말은 철수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23)는 ‘말이다-2’가 대등적 연결어미나 종속적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연결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후행절에서 선행 용언을 대응화하지 못하고, ‘말이다’도 다른 형식으로 대응되지도 못한다(*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고, 철수가 영수에게 그런 말을 그렇단 말이다/*할 수 있단 것이다).

4. ‘말이다-2’의 재구조화

지금까지 ‘말이다-2’는 기원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분석될

10) (22가)와 (22나)가 설명의문문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때는 ‘말이다-2’이 아니라 ‘말이다-1’이다.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재구조화되었고,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말이다-2’의 재구조화를 먼저 앞의 (7)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 (24) 가. [그것은] [[[내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말]이다.
- 나. [그것은] [[[내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다.
- 다. [그것은] [[[내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ㄴ] 말]이다.
- 라. [영희가 제일 예쁘단] 말이다.

(24다)는 ‘-는’이 ‘-ㄴ’으로 대체된 것을 상정해 본 것이고, (24라)는 ‘말이다’가 재구조화되고 [그것은]은 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 생략된 것을 상정해 본 것이다. (24다)의 경우 ‘이다’는 여전히 두 개의 명사구를 요구하는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4나)가 발화 상에서는 (24다)처럼 ‘-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24다)는 (24나)로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24라)의 ‘-말이다’가 재구조화되어 하나의 양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기능하여 ‘말이다-2’의 구문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는 말이다’의 단계에서는 재구조화되지 못하고, ‘-는’이 ‘-ㄴ’으로 대체된 이후에 ‘-말이다’가 재구조화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구조화되기 위해 ‘-단’으로 축약되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없다. (24다)의 ‘-ㄴ’은 ‘-는’의 단순히 음운상의 축약일 뿐이다.

‘말이다-2’ 구문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재구조화되었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 (25) 가. 내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고 말을 했다.
- 나. 내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고 한 말
- 다. [그것은] [내가 영희가 제일 예쁘다고 한 말]이다.
- 라. [그것은] [영희가 제일 예쁘단 말]이다.
- 마. [영희가 제일 예쁘단 말]이다.

(25가) 주어 ‘나’에 의해서 이미 화자에 의해 발화가 이루어졌거나 내적으로 이루어진 발화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 말을 했다’처럼 과거형으로 상정했다. 그 이유는 (25나)처럼 관계화시킬 때 ‘...고 한 말’처럼 ‘-ㄴ’으로 관계화가 되고, (25라)에서 ‘-고 하-’가 탈락되고 난 후 ‘-ㄴ 말이다’가 남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25가)의 관계화를 거쳐 (25나)의 명사구가 생성된다. 이 명사구에 ‘이다’가 결합되어 계사구문을 이룬 것이 (25다)이다. ‘이다’는 NP₁과 NP₂ 두 개의 명사구를 보어로 선택하므로 NP₁으로 ‘그것은’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 (25라)에서 ‘-고 하-’가 탈락된 후, ‘하-’와 호응하는 ‘내가’는 격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또한 (25라)의 [영희가 제일 예쁘단 말]이다’는 ‘이다’의 의미적 미약성과 ‘ㄴ’의 완료성이나 확정성의 의미 때문에, 그리고 선행 명제와 지시적으로 동일한 ‘말’의 의미 때문에 (25마)의 [영희가 제일 예쁘단] 말이다’로 차츰 재구조화되어 ‘말이다’가 선행 명제의 강조 즉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보조용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주어 ‘그것은’ 더 이상 ‘이다’에 보어가 되지 못해 여과규칙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다’가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ㄴ’의 의미와 ‘말’의 의미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ㄴ’에는 이미 기정의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ㄴ’은 판단의 [+결정성](既定性)을 의미자질로 부여하거나(심재기 1979) [+확정성]이란 의미자질을 부여하기도 한다(서태룡 1980).¹¹⁾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ㄴ’에 의해 표현되는 내용은 이미 확정 내지 완료되었거나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 또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말’은 (22다)에서 ‘영희가 제일 예쁘다’와 동격이다. 즉, ‘말’은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ㄴ 말이다’ 구조가 물

11) 서태룡(1980)에서 동명사 {은}, {을}과 후치사 {은}, {을}의 공통된 기저의미는 표면에서 이들 형태가 결합해 있는 요소를 부정한 [대립적 내용의 전제]이라고 하였다. 동명사이건 후치사이건 {은}에 의해 전제되는 대립적 내용은 [+확정성]이란 특성을 갖기 때문에 화자는 그 전제되는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 바 있다.

려받아 선행절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말이다'를 '말이다-1'과 '말이다-2'로 나누어 그 통사적 특징과 '말이다-2'의 재구조화를 살펴보았다.

'말이다-1'구문은 기본적으로 'NP₁이 NP₂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그 논항은 'NP₁'과 'NP₂'가 된다. '말이다-1'의 '이-'는 NP₁과 NP₂ 간의 동일성이나 속성 관계를 나타낸다. NP₂의 핵 '말'은 관계화 구성이나 보문구성에 의해 확장된다. '말이다-1'에 선행하는 '-는'은 간접인용문에 나타나는 보문자 '-고'와 상위문의 인용동사 '하-'가 결합된 '-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되고 남은 형태이다. 전형적인 계사구문을 이루기 때문에 부정이 가능하며, 시제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통합이 자유롭다.

'말이다-2' 구문의 '이다'는 주어 명사항에 대한 '동일성'이나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다-2'는 단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조를 나타낼 뿐, 어떤 명제 내용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이다-2'의 특성은 '말+이다'가 재구조화되어 양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말이다-2' 구문은 화자 중심의 양태구문으로 주어의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다. 하위문의 문장형식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러나 '말이다-2'의 선행용언이 생략된 채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아니다' 부정도 불가능하며, 선어말어미 '-겠-', '-었-', '-시-'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말이다-2' 구문은 그것의 의미기능으로 인해 의문형어미와 통합하는 데 큰 제약이 있지만, 설명의문이 수사의문으로 쓰일 경우, 또 내적의문일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말이다-2'는 연결어미와 통합에 제약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행절에서 선행 용언을 대용화하지 못하고, '말이다'도 다른 형식으로 대용되지도 못한다.

'말이다'는 '이다'의 의미적 미약성과 '-니'의 완료성이나 확정성의 의미 때

문에 '말이다-2'로 재구조화되어 선행 명제의 강조를 나타내는 일종의 보조용언이 된 것으로 보였다. '말이다-2'가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미 확정 내지 완료되었거나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 또는 상태를 표시하는 '-니'의 의미와 '말'의 의미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참고문헌

김수태(2001), 「-고 하-의 생략과 씨끝의 융합」, 『한글』 254, 한글학회.

김정아(2000),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남기심(1969), 「문형 'N1이 N2이다'의 분석연구」, 『계명논총』 12, 계명대학교.

남기심(1986), 「국어원형보문문법 연구」, 『국어학총서』 7, 국어학회.

남길임(2003), 「이다 구문의 한 유형 - 양태 구문으로서의 '이다' 구문 연구-」, 『한글』 259, 한글학회.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배희임(1981), 「국어보문의 몇가지 문제」, 『어문논집』 22, 고려대학교.

서정목(1998),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 태학사.

서정목·이광호·임홍빈·윤김(1990), 『변형문법』, 을유문화사.

신선경(1993), 「'것이다' 구문에 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말』 17호

안주호(2004), 「-는 법이다'류의 양태표현 연구」, 『국어학』 제44집, 국어학회.

안주호(2004), 「-ㄴ 수 있- 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안주호(2004), 「'N+이다' 구성의 양태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11.

양정석(1997), 「재구조화 재고」,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양정석(2000),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이래호(1996), 「중세국어 계사구문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표(1997), 「공주제화와 주제화의 관계」, 『한국어 공법주론』, 태학

사.

이정민, 박성현(1991), 「-요' 쓰임의 구조와 기능」, 『언어』 16-2.

이정애(1999),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필영(1990), 「관계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이해영(1994), 「담화표지 '글썸'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대.

이현희(1990), 「보문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이현희(1999), 「중세국어 내적화법의 성격」, 『문법』 II, 태학사.

이흥식(1999), 「명사구보문」, 『국어학』 33, 국어학회.

임규홍(1995), 「말이야'의 담화기능 연구」,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 어학연구소.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서울대 어학연구소.

최재희(2000), 「-고'에 이끄는 내포 구문의 의미 해석」, 『한글』 248, 한글학회.

황병순(2004), 「한정 관형절과 비한정(부정) 관형절」,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A Study on syntactic characteristics and restructuring of 'malida' sentence

Lee Rae-ho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structuring of 'malida'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malida-1', 'malida-2'.

'Malida-1' sentence has basically 'NP_{1i} NP_{2i}-' structure. So its sentence can change negative sentence transformation and combine the tense pre-ending, conjunction ending.

'Malida-2' sentence don't describe sameness or property between NP₁ and NP₂. 'Malida-2' is combined with the preceeding complemet '-n'. 'Malida-2' means that show speaker's attitude about a proposition of a sentence and not be concerned in construction of the proposition's contents. 'Malida-2' sentence has no restriction of subject but has restriction of negative sentence transformation, combination of tense pre-ending and conjunction ending. 'Malida' is restructuralized 'malida-2' because of semantic weakness of 'ida' and the completion or definiteness of the ending of '-n'.

〈Key word〉

malida, restructuring, modal expression, proposition, coupla sentence, complementiser relatives, relative clause